

# 학습부진 대학생을 위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최주영<sup>1</sup>, 김경희<sup>2\*</sup>

<sup>1</sup>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수료, <sup>2</sup>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The Effects of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Underachieved Students

Joo-Young Choi<sup>1</sup>, Kyung-Hee Kim<sup>2\*</sup>

<sup>1</sup>Ph. D. candidate,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습무동기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2, 3학년 14명의 학생들을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배치하여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결과 값을 활용하는 대응표본 t 검증과 실시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대상으로 6회기 운영되었다. 실험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무동기의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동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학습무동기 수준이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논의했으며,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습무동기,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학습부진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underachieved students. Participants in the program consisted of 14 sophomores and senior.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n=7) or the control group(n=7). To analysis the effectiveness, matched pair t-test and independent t-test. The programs offered 6time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ook part in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there was a increase in self-esteem. But the improvement was not significant. Second,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ook part in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academic amotivation.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more significant decrease in academic amotiva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Self-esteem,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amotivation,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Underachieved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Kim(smkh22@hanmail.net)

Received October 30,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30,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초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 시기는 만 18세 이상의 20대를 의미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탐색하고 확립해 나간다.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1].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 취업, 대인관계, 대학생활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 생활 중 좋은 학업 성적 유지는 진로선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업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대학생의 시기는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학생활과 참여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전 초·중등 교육환경에 익숙해진 까닭에 학생 개인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새로운 대학 학습 환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부적응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생의 학업성취가 학생 개인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이외에도 대학교육의 성공 지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2].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는 학습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상에서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로 정의된다[3]. 선행연구 연구에서는 학업 저성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성취수준보다 성취수준이 하위 5%-20%에 속하는 학생들을 학습부진 학생으로 정의한다. 학습부진의 특성을 보이는 원인은 크게 낮은 학습 능력, 낮은 학습 동기 수준, 불안 우울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과 원거리 통학, 교육 환경 등의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4,5]. 최근 다양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간에 학습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의 학습부진은 낮은 성적으로 나타나며 반복될 경우 학사경고로 나타날 수 있다. 학사경고의 경험은 개인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 초래, 잦은 휴학, 학업 포기,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개인의 진로선택의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하락, 인생계획의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6]. 학습부진 대학생의 특징으로는 낮은 전공 만족도, 낮은 학습 동기 수준, 목표 부재, 학습 전략이나 기술 부족, 시간 관리 능력 부족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9].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습부진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참여율이 저조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10].

대학 차원에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11].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고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특징 중 학습 전략 개선, 학습 전략 습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2]. 그러나 학습부진 집단과 성적우수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습 전략이나 기술 이외에도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 요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 학업 동기, 성격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에는 전략과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심리적 요인이나 개인 특성 요인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학습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12-14]. 자아존중감은 자기 사랑,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아개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한다[15].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 수준이 높으며 자신을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반면 학습부진 학생들은 누적된 실패경험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2,16,17]. 이성희(2006)는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함을 보고하였다[18]. 학습부진 학생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학습태도는 지속적인 학습실패의 경험으로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생과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19].

학습부진 학생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는 낮은 학습 동기 수준이다[20]. 동기는 행동하게 하는 힘의 근원의 기능, 행동의 조절자로서 기능한다[21].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이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힘으로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22]. 반면 무동기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동기 유형 중 하나로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무동기 상태의 학생들의 경우 전혀 공부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많은 학습 부진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동기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무가치 신념, 무능력 신념, 무노력 신념, 무흥미 신념으로 구성된 무동기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학생들이 별다른 개입 없이 이러한 무동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더 이상 학업상황에서 학업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24].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정적 행동, 정서를 저하시켜 우울,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은태, 김영빈(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 학생들은 낮은 동기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증진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25]. 새로운 경험을 통한 학습과 자기보상, 반복적인 학습참여를 통한 성공경험을 해나감으로써 무가치 신념, 무능력 신념, 무노력 신념, 무흥미 신념으로 구성된 무동기 신념이 변화할 수 있다[26,27].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가지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학습 동기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학업성취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은 동기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학습에서 인지, 동기, 행동조절, 자기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내용[28]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동기능력과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기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의 무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대학교의 재학생 14명이다. 이들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이전 학기 성적이 낮은 학생 대상으로 14명을 선정해 7은 실험집단 7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정보와 실험설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mmary of research subjects

Category		Exp.	Cont.
		N	N
gender	male	2	1
	female	5	6
grade	sophomore	4	6
	senior	3	1
Total		7	7

### 2.2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방법을 활용하였다. 설계 모형은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6회기를 실시하였다. 1회기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90분으로 진행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	O1	X	O2
Cont.	O3		O4

O1 : Experimental group pre-test  
 O2 : Experimental group post-test  
 X : Treatment  
 O3 : Control group pre-test  
 O4 : Control group post-test

2.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목표

2.3.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심리적 지원 및 학업적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둘째, 학습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습동기 향상시키기.

2.3.2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매 회기는 90분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2.4 측정도구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사랑, 자기수용, 자기만족, 자아개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 즉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한다[29].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하유진(2006)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5,29].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이다.

2.4.2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무동기 상태는 행동과 행동 이후의 결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다[30]. 학습 상황에서 무동기 상태인 학생들은 학습상황에서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습수행에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적고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무동기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Legault, Green-Demers와 Pelletier(2006)가 개발한 척도를 조은문(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1,32]. 학습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가치 신념,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무능력 신념, 학습에 필요한 꾸준한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할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신념인 무노력 신념, 학업에서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흥미 신념으로 구

Table 3. Contents of program

session	goal	contents
1	Pre-test Self-Knowledge	- OT, pre-test - knowledge own needs and interests - make own life graph - find own pros and cons
2	Learning strategy 1 self-knowledge, vision	- express my goal and vision - search for meaning of university and study - find own motivation
3	Learning strategy 2 find obstacle	- find obstacle - find new solution
4	Learning strategy 3 time management	- make a schedule - time management
5	Learning strategy 4 setting goal	- setting behavioral goal - feedback about behavioral goal
6	Learning strategy 5 habits Evaluation post-test	- learning strategy : notes, environment - test-Taking Strategy - evaluation - post-test

Table 4.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1

group		pre M(SD)	post M(SD)	t	p
Exp.	self-esteem	34.42(5.65)	37.71(5.12)	-1.766	.128
	amotivation	42.86(9.91)	29.85(6.39)	4.171	.006
Cont.	self-esteem	33.28(2.87)	34.85(3.72)	-1.44	.199
	amotivation	40.29(11.16)	45.43(10.88)	-1.954	0.98

$p < .05$ ,  $p < .01$ \*,  $p < .001$ \*\*.

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무가치 신념 4문항, 무능력 신념 4문항, 무노력 신념 4문항, 무흥미 신념 4문항으로, 총 16 문항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신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70이다.

### 2.5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결과 값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변화량을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점수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34.42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1.766점 증가한 37.71점으로 향상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42.86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는 4.171점 감소한 29.8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1$ ).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33.28에서 34.85로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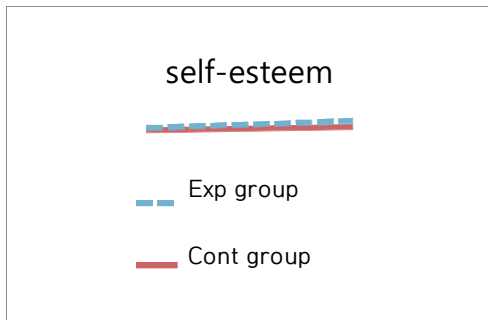


Fig. 1.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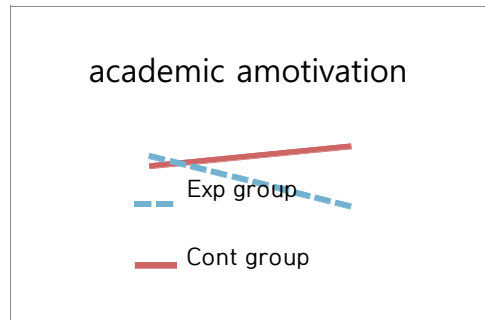


Fig. 2.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Table 5. Independent sample t-test of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category	Exp.	Cont.	t	p
self-esteem	-3.29(4.92)	-1.57(2.88)	-0.795	.442
amotivation	13.00(8.25)	-5.14(6.96)	4.448	.001

$p < .05$ ,  $p < .01$ \*,  $p < .001$ \*\*.

Table 6. Effects of the academic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2 (subfactors)

	group	pre M(SD)	post M(SD)	t	p
Exp.	positive SE	17.71(2.56)	19.29(1.70)	-2.294	.062
	negative SE	16.71(3.72)	18.42(3.74)	-1.279	.248
	valueless belief	8.71(2.75)	6.00(1.91)	2.175	.073
	incompetence belief	10.00(2.82)	7.42(2.51)	4.500	.004
	zero-effort belief	12.86(4.02)	8.14(1.21)	3.161	.020
	no-interset belief	11.28(2.68)	8.29(2.06)	3.240	.018
Cont.	positive SE	17.14(1.07)	17.14(1.57)	.000	1.000
	negative SE	16.14(2.04)	17.71(2.75)	-1.868	.111
	valueless belief	7.42(3.55)	9.71(3.09)	-2.151	.075
	incompetence belief	10.86(2.54)	10.14(2.54)	.600	.570
	zero-effort belief	11.29(3.35)	13.29(3.35)	-1.833	.116
	no-interset belief	10.71(3.09)	12.29(3.09)	-1.868	.111

$p < .05$ ,  $p < .01$ \*,  $p < .001$ \*\*\*.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는 42.86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는 4.171점 감소한 29.8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1$ ).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33.28에서 34.85로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무동기의 점수는 40.29에서 45.43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 실험집단-통제집단 간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변화량 차이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하위요인 점수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실험집단의 경우 학습무동기 신념의 하위요인인 무능력 신념이 사전점수 10.00점에서 사후점수 7.42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학습무동기 신념의 하위요인인 무능력 신념의 사전점수는 12.86, 사후점수는 8.14로 사전-사후 점수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무흥미 신념의 사전점수는 11.28, 사후점수는 8.29점으로 사전-사후 점수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1$ ).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어떠한 하위 요인에서도 사전-사후 점수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3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

하위요인의 변화량 차이는 Table 6과 같다. 실험집단의 무능력 신념( $p < .01$ ), 무능력 신념( $p < .05$ ), 무흥미 신념( $p < .05$ )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매 회기는 90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향상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증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고한 남성진(2003), 이성희(2006)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18,19]. 학습부진 학생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계속되는 학습실패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단기간의 프로그램 참여로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습부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동

안 많은 성공경험을 통해 자기이해를 높여가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 및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있던 활동들 이외에도 학습부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련 요인을 탐색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학습무동기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학습무동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에 학습무동기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학습무동기의 점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대학생의 학습무동기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부진 학생들은 낮은 동기 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증진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 김은태, 김영빈(2013)의 연구[25], 새로운 경험을 통한 학습과 자기보상, 반복적인 학습참여를 통한 성공경험을 해나감으로써 무동기 신념 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 Wolters(1999), Purdie, Hattie, Douglas(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6,27].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학기 성적이 낮은 학생 대상으로 14명을 선정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 프로그램을 추가로 다른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자기보고 식 질문지의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프로그램의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거나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추가 설문이나 학생들의 다음 학기 성적 확인을 통해 실제로 해당 학기의 학점이 향상되었는지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습부진 학생에게 적용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이 무동기 신념 변화에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동기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대학 내 담당 행정 부서와 각 학과의 교수,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와 같은 학생지원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학습부진 학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 협조가 없이 학습부진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학에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 학생들이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학업성취의 학생들 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개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학습부진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성 이외에도 학문특성을 고려한 전공별, 학년, 성별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1] E. H.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2] J. Y. Lee, B. M. Kim & E. J. Channg. (2013). Development of program (Exploring Myself) for unsuccessful college students in academic achieve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359-384.
- [3] D. I. Kim. (1999). Educating children with learning difficulties - the prospective agenda of research and practice for educational psychology. *Korea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3(2), 13-32.
- [4] S. W. Kim & H. T. Chae. (2015). Effectiveness of a program for improving learning competency of underachievers at university.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20(3), 25-45.
- [5] M. J. Park & D. W. Choi. (2017).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 ddap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339-349.
- [6] K. W. Cho, S. H. Kang, E. K. Lee & N. M. Yang. (2000). A research on students with academic probation and program for academic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51-97.
- [7] K. H. Lee & K. R. Kang. (2016). Study on the effects of the learning coaching programs focused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for academic underachievers.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4(2), 1-22.
- [8] S. H. Kang, E. K. Lee & N. M. Yang. (2000). A study about developing the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high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221-242.
- [9] J. Y. Park, H. N. Lim & D. R. Kim. (2018). The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college : focusing on learning motivation, core competence, time Management,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331-341.
- [10] B. H. Jun, S. H. Kang & S. J. Yune. (2015). Academ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having academic probation experiences and the effect of learning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15(9), 137-160.
- [11] Y. H. Song. (2017). Comparing Levels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onvergence Competency according to Their Field Experienc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47-152.
- [12] J. H. Li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Path Analysis of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23-332.
- [13] S. W. Yoon, & Y. S. Kwon. (2015).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91-98.
- [14] H. K. Lee et al. (2017). Converged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15-23.
- [15]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6] M. J. Lee. (2009). *A comparative study of self-esteem and learned helplessness of the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17] O. O. Oh. (2002).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5), 684-845.
- [18] S. H. Lee. (2006).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s, and self-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1), 5-12.
- [19] S. S. Nam. (2003). *Effects of a self-expression training 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low achieving student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0] C. P. Smith & M. T. Winterbottom. (197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1. *Journal of Personality*, 38(3), 379-391.
- [21] A. Y. Kim. (2010). *Academic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Seoul: Hakjisa.
- [22] J. H. Li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path analysis of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23-332.
- [23] L. Legault, D. I. Green, L. Pelletier. (2006) Why do high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classroom? Toward understanding of academic 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67-582.
- [24] J. H. Bae. (2008).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hool learning history, and motivational variables on learned helpless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5] T. E. Kim & Y. B. Kim. (2013). The effect of a motivation program for low academic achievers in the element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9(4), 93-113.
- [26] C. A. Wolters. (1999). The 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al regulation and their uses of learning strategies, effort, and classroom performa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281-299.
- [27] N. Purdie, J. Hattie & G. Douglas. (1996). Student conceptions of learning and their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 87-100.
- [28] E. M. JO & J. E. Lee. (2012).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otivation regulation program for amotivated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1), 85-110.
- [29] Y. J. HA.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and 30s,*  
Yonsei University of Education,

- [30] E. L. Deci & R. M. Ryan.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University Rochester Press.
- [31] L. Legault, I. Green-Demers & L. Pelletier. (2006).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67-582.
- [32] E. M. Jo. (2012).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otivation Regulation Program for Amotivated Middle School Student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최 주 영(Choi, Joo Young)

[정회원]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 1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수료)
- 관심분야 : 학습, 진로
- E-Mail : qldkfzb2@naver.com

김 경 희(Kim, Kyung Hee)

[정회원]



- 1994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4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마음챙김, 수용
- E-Mail : smkh22@hanmail.net